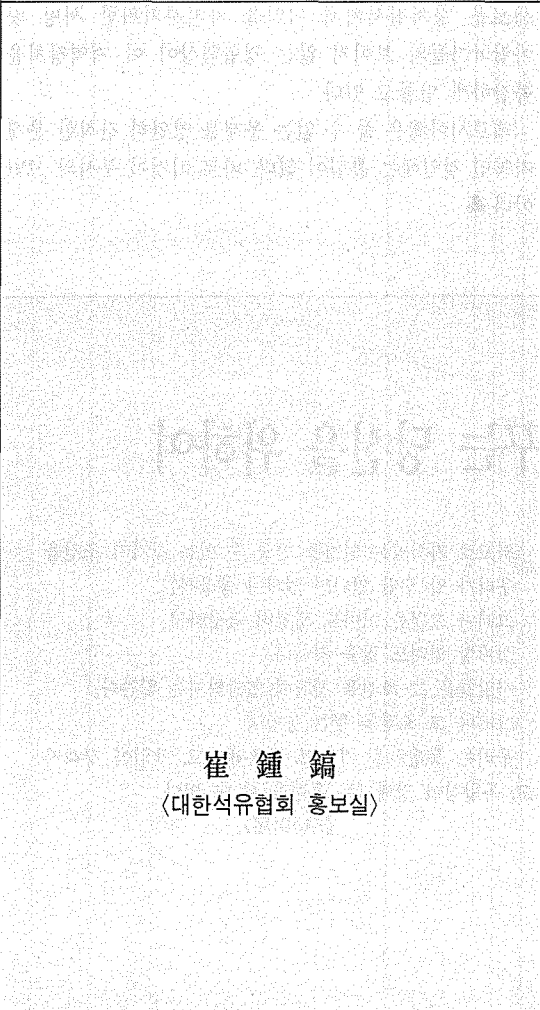


세계 를 움직이는 에너지 —
 석유가 다시 한번 그 波高를 높이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합병선언, 그리고 여기에
 대응한 다국적군의 결성과 이라크 봉쇄로 페르시아灣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中東은 세계석유매장량의 65.2%, 세계석유수출의

중동사태와 지역패권주의



崔 鍾 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44%를 담당하는 석유자원의 보고이자 세계에너지공급의 중심이다. 석유는 세계에너지소비의 약 39%를 차지, 세계경제의 기저를 이루는 主宗에너지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의 중요성과 그 지역편중성으로 인하여 中東은 석유를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간, 그리고 냉전시대에는 미·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각축의 장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로 지칭되어 왔다.

中東의 석유사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이 자원의 보유자와 개발자가 서로 다른 존재였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유자인 中東인들이 석유의 가치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서구인들은 이미 이 자원의 가치와 유용성을 간파하고 거의 무상으로 석유를 채굴, 이용하였다. 中東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보유자와 개발자간에 석유를 둘러싼 치열한 이권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中東산유국은 처음의 약세에서 점차 탈피, 그들의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왔으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결성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한 中東의 산유국들, 특히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은 석유를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기로 이용, 자원민족주의라는 말을 파생시키면서 세계경제를 흔들 정도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산유국들의 석유이권강화에 맞서 한 때 세계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석유개발이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메이저(국제석유자본)들도 그들의 기존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경제에서 밀리게 된다.

석유에 대한 지배권이 中東산유국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서구의 석유소비대국들은 안정적인 석유공급확보를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특히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이자 수입국인 美國은 2차대전 이후 中東내 유일의 非아랍친서방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中東내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시 아랍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이란의 팔레비 왕정을 맹목적으로 지원, 中東지배를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팔레비왕정이 무너지자, 美國은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페르시아만협력 협의회(GCC)를 조직, 中東에서 쇠퇴된 영향력을 유지하려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왕정국가이다. 여기서 아랍내 친서방적 왕정국가들과 아랍민족주의 세력의 성격구명이 이루어지면서 양분되게 된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中東정책이 주로 보수적인 독재정권이나 보수왕정을 군사·정치적으로 지원·조종함으로써 이 지역내에서의 서방의 이익과 아랍민족자신의 이익이 상충되는 관계를 도출시킴으로써 아랍내 반서방적 감정을 형성, 팽배시켜왔다.

OPEC가 석유를 지배하는 산유국들의 확실한 단체로 자리를 잡고 非OPEC 산유국들의 생산저하로 석유의 中東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OPEC내의 산유국들은 각기 자국의 입장에 따라 OPEC석유정책에 대한 두가지의 다른 견해를 표면화시키게 된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저유가派로 저유가로 충분한 석유의 시장세어를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 이라크 등의 고유가派는 고유가로 석유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그들의 석유자원을 보존하자고 주장하였다.

8년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비대해진 군사력의 유지 등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던 이라크는 OPEC의 생산쿼타를 무시하고 초과생산을 계속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비난해오다, 드디어는 쿠웨이트를 무력침공하기에까지 이른다.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의 한 주로서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다가 영국제국주의의 통치를 받게 된다.

1932년 왕정을 정체로하여 이라크에 형식적인 독립을 부여하지만, 1950년 카셈장군에 의해 왕정이 타도되자 영국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1961년 지방투후를 조종하여 쿠웨이트주를 독립국가로 선포한다. 이후 이라크는 계속하여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1973, 74년에는 쿠웨이트를 공격하여 부비안, 와트바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쿠웨이트의 석유매장량은 '89년말 현재 94.5십억배럴(중립지대 제외)로 세계석유매장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만일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유전을 점유하게 된다면 이라크는 총 194.5십억배럴의 매장량을 보유, 세계전체매장량의 19.2%로서 25.2%를 점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석유공급을 좌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美國의 中東전략거점인 GCC의 핵심고리를 절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전쟁후 中東의 강자로 부상한 이라크가 아랍민족주의를 추구하자 이제까지의 두둔하는 입장을 바꾸어 후세인의 패권주의를 비난하면서 군사개입을 하게 된다. 여기에 석유공급에 불안을 느낀 서구의 대소비국들과 아랍권의 주도세력인 이집트가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이라크의 지역적 제국주의를 견제, 미국의 군사개입에 발맞추어 다국적군을 형성한다.

美國은 이번의 군사개입을 통하여 세계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라크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쿠웨이트의 반환등 원상복귀를 요구함으로써 中東에서의 영향력 유지 및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과 화해의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발한 이번의 무력사태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문화 사회」, 「성숙사회」의 개념으로 일부 학자들이 인류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작금의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과 힘을 통한 이의 추구성향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냉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열사의 땅 中東에서 다시 한번 벌어진 두 이해대립자의 대치, 아랍민족주의를 기치로 석유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이라크와 석유의 안정공급을 목표로 中東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도모하는 美國의 격돌이 앞으로 中東에 어떤 세력판도를 형성하게 될지 자못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